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1월 29일(금)
..(음력 11월 3일)..

Пятница
29 ноября 2019г.
№ 46(11686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5일(월) 토마리 구역 일린스코에 마을에 사할린 발전소-2 준공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 극동 연방구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주식회사 '루스기드로'의 대표이사 니콜라이 술기노브가 참석했다.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 제공)

사할린 기능 올림픽대회 개최

12월 2일-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5회 <청년 기능인>(러시아 기능 올림픽/월드스킬스) 지역 기능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직업 교육기관의 학생, 전문 근로자의 위신과 중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할린주 각 지역에서 320명의 경쟁자들이 기능인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직업 전문가 340여 명이 출전자들을 심사하고 대회 진행에 자원 봉사자 250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44개 전문 기능에 따라 20개 경기장이 조직되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부터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까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청소년부 14세-16세, 성인부 16세-22세의 청년 근로자와 전문 교육기관의 대학생들 사이에 세계 기능 올림픽 표준에 따른 대규모 현대적인 전문 기능인 대회이다.

사할린주, 새 발전소 준공

지난 25일(월) 토마리 구역 일린스코에 마을에 사할린 발전소-2 준공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극동 연방구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주식회사 '루스기드로'의 대표이사 니콜라이 술기노브는 새 발전소의 상징적 버튼을 눌러 가동 시작을 알렸다.

1965년 포로나이스크구역 레르문토브카 마을에 세워진 발전소 가동의 종료를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된 새 화력발전소는 2015년에 착공해 전력 공급량은 120MB로 기존 전력 공급량을 3배 정도 증대시킬 수 있다. 발전소 건설에 '테크 모스에네르고' 종합 연료 및 동력회사가 수주했고 '루스기드로' 공사가 투자자로 나섰다. 이 발전소는 20년 만에 사할린에 처음부터 새로이 대규모로 건설된 첫 발전소다.

"현대적 기술을 갖춘 발전소는 친환경적이며 현 지역 지진에 대비하여 모든 기반시설에 안전 대비, 연속 가동을 유지하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사할린 발전소2는 기존 발전소의 전력을 대체하고, 개발을 위해 저장된 동력을 생성해갈 것이다. 우리는 이를 활용해 사할린주의 경제가 발전하도록 하고 지역에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해 힘을 계획이다."라고 극동 연방구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가 설명했다. 발전소 건립과 동반된 제반시설 공사 비용은 400억 루블리 이상이 소요됐다. 허허벌판에 세워진 발전소는 제반 시설 공사로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연료 공급

에 철도를 재 정비하고, 물 확보를 위한 시추공사와, 산사태와 진흙의 흐름으로부터 기술적 방어, 지대를 설계해야 했다. 4년간 진행된 건설 및 공사에 거액의 비용이 들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새로운 발전소 건설로 사회적 제반시설과 산업을 발전시킬 거라 전망한다. 전력망 공급 기획 및 확장에 '루스기드로'와 함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할린 발전소-2는 대통령령의 극동지역 전력산업 발전 지침의 일환으로 '루스기드로'공사가 시행했다. 니콜라이 술기노브 대표이사는 앞으로 연료 소비량도 1.5배 감소할 거라 전망했다.

새 에너지 설비는 '사할린 에네르고'가 맡아 운영하게 되며 발전소에는 러시아 전역에서 특수 분야 전문가들과 사할린에서 일반직 사원을 포함해 약 430명이 근무하게 된다.

사할린 발전소-2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장래 지역의 전력 상승을 대비하게 된다. 사할린 발전소-2의 이고리 샤키로브 대표이사는 "발전소는 향후 50년간 가동시켜야 한다. 현재 그래픽 조정 작업으로 36MB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저녁 시간대에는 최대 60MB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새 발전소 가동에 사용될 연료는 사할린의 네벨스크와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의 석탄이며 연간 최대 전력공급으로 56만톤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신

학생 100여명,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의 상 수여받아

11월 1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스포츠, 문화, 교육 분야의 예술단체와 우수 성적 학생들에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의 상과 장학금 수여식이 이뤄졌다.

예술단체와 재능을 가진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지원은 시의 최우선 행정 정책 중 하나다.

올해 장학금 최대 2만 루블리와 상장은 '졸업생', '경연', '창작적 재능', '올림픽의 희망'부분의 창작예술단체들과 개별적으로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수여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여성의 리더십은 미래의 동력'포럼 개최

11월 2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 문화회관에서 '여성의 리더십은 미래의 동력' 포럼이 열렸다.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을 위한 행사를 <러시아여성연합>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지부가 개최했다.

오후 4시부터 모든 참석자들은 다양한 활동교실에 참여하고 몇몇 인쇄물 전시회와 참석자들의 건강을 검진하는 의료 행사장에서는 주 의료센터의 전문의들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오후 5시에는 '로지나'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기념 콘서트와 여성 지도자들의 출연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버스 요금 22루블까지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내버스의 요금이 20루블에서 22루블로 인상된다. 시외 노선은 1킬로미터당 1.9루블에서 2.1루블로 인상되며 대중교통 카드는 월 450루블에서 495루블로 오른다.

최근에 버스 요금은 2016년 4월 시내버스 요금이 17루블에서 20루블로 3루블 마지막 인상되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 철학, 역사 및 동양학과 '개방의 날'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학·역사·동양학대학 '개방의 날(입학 및 진로 지도)'에 주민들을 초대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입학위원회 대표, 학장, 교육 프로그램의 지도자들이 발표하는데 고학년생들의 학부모들은 입학 시험, 합격 점수, 예비학과,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의 지도자들에게 문의할 수 있다. 사할린국립대와 한국, 일본, 중국의 협력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기회에 대해서도 졸업생들에게 설명한다.

개방일은 12월 7일 14시 레닌 거리 290번지 15번 강당에서 진행한다.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70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7절이 삶의 좌우명

루고위에 장애인 단체의 지도자 김종순 회장

루고위에 장애인 단체 김종순(여권에 김텐순으로 기록, 러시아 이름 스웨틀라나 보리소브나)회장에 대해서 본사 이에식 사진기자가 오래전부터 취재하는 제안을 하다 마침내 김종순 회장택을 찾았다.

희귀병 왜소증을 지닌 김종순 씨의 키는 122센티다.

"저는 6-7살 때까지 키가 컸어요. 원래 7-8살 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키가 멈춰요."라고 김종순 회장이 설명했다. 가족 8남매 중 막내인 그녀 혼자만이 희귀 병에 걸렸다고 한다. 처음엔 어려서 여기에 신경을 안 썼지만 커가면서 신장이 그대로인 것을 알아채고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주목하는 눈길, 걱정스런 호기심, 부주의한 한 마디가 더욱더 상처를 주었다. 전에는 사람들의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현재 67세를 바라보는 그녀는 이제 이런 눈길이나 호기심에 찬 말들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잘 견디고 있다.

"제가 저의 능력과 재능을 실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좋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라고 김종순 씨는 말했다.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항상 선두에 있었다. 학교 반의 반장으로 좋은 일에서나 가끔 장난 칠 때도 그랬었다고 한다.

돌린스크 지역에서 출생, 후에 루고위에(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북부 구역동네)로 이사하고 학교는 루고위에 학교와 노워알렉산드롭스크 학교를 다녔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바로 입학하지 못

특이하게 들린 '종(終(마칠 종) 순'이라는 이름은 부친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다. 족보에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 김 회장은 꼭 이름을 <종순>이란 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종'이란 글자는 한자 음의 옛 표기로 보고 본 기사에서는 '종(終 마칠 종)'으로 바꾸어 표기한다.

해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 바로 그때 장애인으로서 사회에서 가장 크게 첫 차별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고용사무소를 통해 소개된 약국 창고를 찾았는데 약국의 지도부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다시 고용사무소로 돌아왔더니 담당자가 그쪽으로 전화하면서 화를 내고 요구를 했더니 약국 창고에서는 그제야 김종순 씨를 고용했다. 거기에서 3년 기록 회계사로 일하다가 이르쿠츠크 농업대학에 입학해 경제학을 전공했다. 일반학교를 졸업하고는 웬지 교육에 대한 의욕이 강해졌다고 한다. 23세에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그녀는 항상 최고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뺄간(최우등) 졸업장으로 마쳤다. 가족 자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서 공부하자 온 가족이 도와줬다고 했다. 종순 씨 부친은 그녀가 7세가 될 무렵에, 어머니는 대학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언니와 오빠들의 막내에 대한 배려가 컸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할린 농업관리국으로 파견되었지만 거기에서 채용을 거부했다. 아마 왜소증 장애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다가 <사흐게올로기아(사할린 지리학)>이란 기관의 전자계산센터에 입사했다. 사장이 최우등 졸업생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취직이



가능했다. 아무튼 이곳에서 12년간 경제 엔지니어로 활약하며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한다. 1993년에 40세가 된 그녀는 은퇴했다. 경력도 충분했고 장애인으로서 4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었다. 게다가 그가 일했던 <사흐게올로기아>에서 경제 위기로 개편이 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5년째 연금 생활을 하다가 그녀는 45세에 아들을 낳았다. 종순 씨를 보살피는 의사들에게도 아주 놀라운 사례였다. 출산한 병원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맡은 산부인과 과장은 철저한 수술 준비를 해 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이 의사는 이런 특별한 출산 사례에 대해 사할린 의과전문대에서 강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들 복단은 사춘기 기간을 빼고 크게 걸길로 나가지 않았다. 음악적 실력이 있어서 음악 학교에 보냈는데 러시아 전통 악기 발랄라이카를 배워 유럽 여러 도시의 국제콩쿠르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다고 한다. 청소년 시기엔 4년간 종합격투기에도 도전해 체급별 경량급에

출전해 마스터 후보 등급까지 올랐다고 한다. 사할린국립대 폴리테크닉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복무를 한 아들은 현재 전기 전문가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실 연금만으로 가족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현재는 아들의 월급이 큰 보탬이 된다고 한다. 김종순 씨는 엄마해서 아들이 대견할 뿐이다. 김종순 씨의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활동이다. 아들이 3세가 될 무렵, 2001년에 루고위에 장애인회가 김종순 씨를 초대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활발한 그녀는 이 단체에서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직접 기획에 따른 장려금 지원을 작성하고 실행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개발 기획도 했고 오랫동안 단체 부회장으로 활약하며 휠체어를 탄 회장을 대항하는 일이 많았다. 직접 움직였기 때문이다. 회장이 돌아가시고 회장직을 맡은 김종순 씨는 현재는 이 활동에 보다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단체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고 특히 주에서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을 시작할 때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들을 직접 여러 군데 돌아보고 조사했어요."라고 김 회장이 설명했다.

이 단체 회원은 110-115명 정도다. 행사에는 주로 45-50명이 찾는다. 단체 내에서는 12년간 <루고찬카> 합창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얼마 전에 무용단도 조직되었다. 손재주가 많아 재봉도 잘한다. 한번은 일부 뇌성마비가 있는 장애인, 일부는 청각 장애가 있는 농아인으로 구성된 무용단의 무대를 위해 급히 러시아 전통 여성의

상 사라판 7벌을 만들어야 했다. 보좌를 하는 사람과 함께 사흘 만에 옷을 지었다. 합창단이 입고 있는 의상에도 하나 하나씩 아름다운 무늬를 손수 꾸며주었다. 조직적인 면에서 뛰어난 그녀는 다양한 행사 개최에도 항상 성공적으로 일을 해낸다.

회원들이 나이가 들수록 여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년 회원들이 없어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이것이 김 회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김종순 회장은 하나 하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 여러 관계자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행사 준비물, 선물 등도 직접 구입하고 준비한다.

그는 현재 단체를 위한 사무실을 얻으려 하고 있다. 시행정부에서 무료 임대할 하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중인데 이 계획은 내년에 이루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김종순 회장은 <2018년 여성>유즈노사할린스크 경연대회 <사회운동의 지도 여성>부문에서 우승했다.

1953년생, 조선학교 3학년까지 공부해서 한글을 잊지 않고 현재 루고위에교회에서 예배 등 통역까지 하고 있다. 교인으로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7절에 나오는 구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집을 나가려고 하는 필자를 배웅하면서 김종순 회장은 "이 집은 15명의 조카들이 돈을 모아 수리했습니다"라고 했다.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김종순 회장이 앞으로 밝은 모습으로 남은 생을 걸어가는길 간절히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사진: 이에식 기자)

이모저모

연초부터 사할린 은퇴 전 세대 400명이 새 직업을 획득

올 초부터 사할린에서 은퇴 전 세대 400여 명이 새로운 직업을 획득했다. <노년 세대> 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연금 수급 전 연령 5년 이하의 연령층은 다시금 대학생이 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교육은 2주에서 5개월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 은퇴 전 세대는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추가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사할린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도로 시설 및 건설 분야 방면이 인기가 있다.

연방 및 지방 예산의 보조금 지원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거나 자질 향상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예산은 고용주들이 은퇴 전 직원의 교육과 올해 조성된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직의 주민 기획으로는 무상 교육과 매월 장학금도 제공한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С начала года 400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енсионеров получили новые профе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с начала года около 400 предпенсионеров получили новые профессии. Обучен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Согласно ему, снова стать студентом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которому до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осталось менее пяти лет.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ложности преподаваемой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е занимает от 2 недель до 5 месяцев. За это время люди могут как повысить свою квалификацию, так и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реди островитян популярны направления в сферах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лучить нов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ли пройти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можно за счет субсиди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Ей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аботодатели, как направившие на обучение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так и организовавшие обуч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А для неработающих граждан проект — это не только беспла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о и ежемесячная стипенд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жалин 주민들에게 만두 빨리 먹기와 고기 분쇄 대결로 3킬로그램의 만두 시상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유명한 '만두의 날'을 맞아 미식 축제 경기에 시민들의 참가 신청을 기다린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즐거운 오락과 단체 경기를 준비했다. 경기 우승자에게는 부상으로 만두 반제품 3킬로그램을 시상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만두의 날'인 12월 14

일은 정기 연말연시 행사 중 첫 명절 행사가 된다. 전례대로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속을 채운 만두를 주된 요리로 대규모 시식대회가 계획되어 있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시민들을 위한 경기를 마련해 놓았다. '고기 빨리 분쇄하기', '만두 빨리 먹기' 등 즐거운 다른 대회들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다. 대회 우승자들에게는 부상으로 3킬로그램의 만두를 수여한다. 경기 참가를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은 조직위원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참가자 수가 제한되어 한 대회에 성인 5명이 출전 가능하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12월 11일까지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주 중심의 시청은 10월 24일부터 지역 급식시설로부터 만두 축제의 신청서를 접수해왔다.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카페, 레스토랑들은 시민들에게 북방의 전통요리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 힌칼(조지아 만두), 부즈(몽골 만두, 라비올라(이탈리아 만두), 바오쯔(중국 만두), 교자(일본 만두) - 의 만두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 만두의 가격은 1인분에 350루블리 이하다.

За 3 килограммапельменей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быстро есть и собирать мясорубк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ждет заявки горожан на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известного как День пельменей.

(8면에 계속)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너무 다르지만 함께 있다>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을 앞두고 지난 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우리는 너무 다르지만 함께 있습니다>제16회 장애인 축제가 펼쳐졌다.

이날 수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였다.

루고위에 장애인회,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애인 양로원, 청각 및 맹인 장애인협회 등 단체 및 기관을 대표하는 예술단과 솔리스트들이 멋진 무대를 펼쳐 다양한 시낭송, 노래와 춤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문화회관 홀에는 장애인들의 그림, 공예품 등 전시회가 펼쳐졌다.

(이예식 기자의 글과 사진)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사평역(沙平驛)에서 /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툭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뻘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툭툭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툼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이맘 때 뜬금없이 저는 유즈노에서 노글리키 Ноглики로 향하는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오히려 Oxá. 노글리키 역에서 오히려 가려면 이제 버스를 갈아 타야 하는데, 그 날 따라 폭설이 내려 예정된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살다살다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인 마을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추워서 일단 저는 아끼던 장갑을 두개나 끼고 동네를 어슬렁 거렸는데요. 꼬박을 사러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장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렸던 것도 같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얼른 숙소로 들어갔는데요. 장갑을 잃어버린 기억보다 저는 이 때 제 머릿속을 맴돌던 낯익은 절이 떠오릅니다.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이 시가 그렇게 낯익을 맴돌더라고요. 쓸쓸함, 미련, 어쩌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어떤 기억들과 그 기억에 둘러싸인 오래전 과거의 저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켜보니 고맙기만한 노글리키의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사평역>은 어디쯤 이실지 궁금해지는 겨울 밤입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2019.11.27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 안내문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yuzhnosakhalinsk@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0년 2월 15일까지
□ 대상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출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yuzhnosakhalinsk@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 절차, 방법, 신고, 신청 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제공)
(국외부내자신고 관련 포스터는 7면에 게재)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по ссирым взяли серебр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ткрытый фестиваль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прошёл в городе Йе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0 стран: Росс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азахстан, Новая Зеландия, Турция, Киргизия, Испания, Китай, Монголия и Бразилия.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России честь страны отстаив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хабаровские, якутские и тувинские борцы.

По итогам схваток две ступени пьедестала заня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Испании - перв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о.

Россия впервые добралась до призовых мест и расположилась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Ссирым - разновидность поясной борьбы, в которой противники, удерживая друг друга за оригинальный пояс (сатпа), обёрнутый вокруг талии и бёдер, пытаются повалить друг друга на землю, используя при этом самые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риёмы борьбы вольного стиля. Для победы необходимо заставить соперника коснуться земли любой частью тела выше колена.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нылая пора в стихах

В уходящую неделю но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ошёл конкурс выразительного чтения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Осенняя пора».

Студент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Китая и Японии смогли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чтении стихотворений русских классиков. В зале прозвучал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Пушкина и Алексея Плещеева, Афанасия Фета и Александра Блока, Константина Бальмонта и Анны Ахмат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нкурса в этом году занималась магистр филологии Ольга Меркулова, она же входила в состав жюри, определившего пять номинаций и дипломы трех степеней. По замыслу организатора, при чтении стихотворений нужно было не только передать лирические мелодии, но и максимально полно понять стихотворный текст.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студенты выразительно читали строки из русской поэзии наизусть, а потом отвечали на вопросы членов жюри.

В результате состязания,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из трех стран,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Ло Ин («Эмоциональное прочтение»), Вэй Сяобин («Артистизм»), Инь Дунлу («Культура речи»), Фэн



Лицзюнь («Чист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и Такаэсу Кана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исполнения»).

Наряду с японскими и китайскими студентами,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две девушки (Ким Чхэ Ри, Мун Вон Ён) и один юноша (Ли Мин Сок) из Южной Кореи. За выразительное прочтение фрагмента «Унылая пора, очей очарованье» из пушкинског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Осень» студент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Ли Мин Сок был награжден дипломом III степени. «Мне было немного трудно учить эт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Но оно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Хотя я всё-таки больше люблю лето, чем осень», – поделился Ли Мин Сок.

В заверш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й встречи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вручили памятные адреса с определением номинаций и сладкие призы.

Александра Малее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Цвет нации – это о них

Еще в сентябре месяце в Узбекистан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Дмитрия Шина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 Геро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наши соседи сразу, как только книга была готова к изданию, а над сбором материала автор работал более 10 лет,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следующий шаг к читателю – нашли спонсоров и издали ее. Верный друг газеты, историк и журналист Дмитрий Шин, заехал к нам в редакцию и поделился с нами этой хорошей новостью, рассказав и о финансовых проблемах, которые мешали заполучить эту ценную для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СНГ книгу. С радостью сообщаем читателям – книга вышла в свет и у нас в Казахстане! Благодаря председателю АКНЦ Брониславу Сергеевичу Шину, мы теперь имеем пол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национальных Героях нашей страны, о тех, кого по праву называют цветом нации.



– Я ищу тех, кто не просто даст денег на издание. Мне нужны сподвижники, которым дорога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СНГ, те, кто спонсирует выпуск книги по зову сердца, – сказал в интервью Дмитрий. – Я ведь тоже все эти годы работал, можно сказать,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чалах. Все за свой счет: 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омандировки, и подготовка к печати материалов. Поэтому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откликнулись такие же люди.

Уверена, это было сказано очень искренне. Мы, журналисты, люди отзывчивые, но вездливые и привыкли верить только фактам, не чуждо нам и настойчивое желание проверить на прочность эти самые факты. Так вот, когда мы Дмитрию предложили помощь от газеты, мол, давайте дадим информацию с обращением к людям,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илах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он наотрез отказался, дав добро лишь на интервью о содержании книги. Дмитрий встретился с Брониславом Сергеевичем. Отрадно, что поддержку в издании оказал именно такой неравнодушный человек, знающий цену духовного богатства, каковым является труд Дмитрия Шина.

Поздравляем Дмитрия и нас всех с обретением материала о корейцах, прославивших своим доблестным трудом Казахстан! В трудное и жестокое время

для страны и корейцев, в чьи судьбы грубо вмешалась «депортация», они не опустили руки, а кормили страну, их семьи голодали, но знали, что трудом можно выйти из этой безнадежности. В книге очень много интересных и даже уникальных фактов, которые оформлены в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е очерки; автор поработал с потомками героев,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или материалы из семейных архивов. За десятилетие Дмитрий нашел возмож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практически со все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з 206 Герое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Поэтому в книге есть очень много интересных фотографий, которые рассказывают об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об историях семей, о том, какой ценой была завоевана светлая жизнь и проторена дорога в будущее. Книга получилась, благодаря дотошной работе автора.

– Какие мысли возникают у Вас, Дмитрий, после выхода книги?

– Во-первых, я горжусь героями своей книги и рад, что и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имеют материал по всем Героя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Во-вторых, спасибо спонсорам и всем, кто мне помогал в работе над книгой. И в третьих,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личном, я получил большое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от самой работы. Что из этой работы получилось – судить читателю.

– Какой-то вывод, о котором неведомо читателю, наверняка тоже напрашивается?

– Об абсолютном выражении. Думаю,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 этом, то Герои-корейцы по количеству опережают молдаван, эстонцев, литовцев, латышей. Ведь, посудите сами, все пере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имели свои республики в составе СССР, а у корейцев, как известно, собственн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оюзе не было. Из них на Узбекистан приходится 138 человек, на Казахстан – 67 и в РСФСР проживала единственный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 знаменитая сахалинская рыбацка Александра Хан. В Казахстане большая часть героев-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ла там, куда были в основном депортированы корейцы – в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и Талды-Курганской областях.

О книге, о героях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чень много, можно восхищаться каждым, удивляясь тому, как возможен был тот или иной поступок. Глядя с высоты сегодняшних лет, невольно примеряя к себе те реалии, поражаешься силе характеров, которая жила в тех людях и оставила их в нашей памяти.

Возьмите в руки книгу и взгляните в лица тех, в чьи надежные руки было вручено будущее страны. Вы многое откроете для себя.

Тамара ТИН (Газета «Коре ильбо», Казахстан)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АСЕАН расшир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технологий "умных городов"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Пусане состоялось собрание министров РК и АСЕАН по вопроса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умных городов. Министр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Ким Хён Ми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коллегами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городов и пришли к соглашению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начале рабо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K-SCON (Korea Smart City OpenJavaScript; Network)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страны АСЕАН, государства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и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в корейской модели умных городов. В рамках K-SCON четырьмя странами АСЕАН будет оказана поддержка в составлении комплексного плана создания "умных городов" и проведени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оценочных раб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чредит специальный фонд в размере 1,2 млрд долларов, 255 млн долларов из которого будут выделены на реализацию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В четырёх странах АСЕАН будут созданы центр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вопросам создания "умных городов"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поиска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ектов и укреплен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и компаниями РК и АСЕАН. Также в этот день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в сфере создания "умных городов"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земельной и жилищной корпорацией и губернаторством Малайзии Сабах.

В сентябре Россия поставила в КНДР 2.136 тонн светлых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ООН, в сентябре Россия поставила КНДР 2.136 тонн светлых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Это на 476 тонн меньше, чем было поставлено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С 2017 года ООН требует от стран-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ежемесячных отчётов о поставках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КНДР. Резолюция 2397 допускает годовой экспорт переработанной нефти в КНДР в объёме 500 тысяч баррелей или 60-65 тыс. тонн.

Кан Гён Хва сообщила о решении обсуд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аммита РК и Япони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Кан Гён Хва сообщила о решении обсудить с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ой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и Мун Чжэ Ина и Синдзо Абэ по случаю саммита РК, КНР и Японии,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в Китае. Об этом она заявила 23 ноября в Нагое сразу после переговоров со своим японским коллегой Тосимицу Мотэги. Если встреча главы РК Мун Чжэ Ина и японско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Синдзо Абэ состоится, то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они затронут тему компенсаций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осуществлявшейся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протектората над Кореей. Именно данный вопрос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причин споров двух стран.

Ким Чен Ын проверил боеготовность военной части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военную часть на острове Чханниндо в Жёлтом море и провёл инспекцию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на её западном участке. Об этом 25 ноября сообщили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альном телеграфном агентстве (ЦТАК). Ким Чен Ын лично проверил боеготовность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риказав провести стрельбы по указанной цели, и остался доволен тем, ка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олдаты с высокой бдительностью подходят к "обороне фронта". Отметим, что остров Чханниндо находится в особой зоне Жёлтого моря, гд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говорённостям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запрещены любые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в ответ на сообщение ЦТАК выразили сожаление по данному пов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ое военное ведомство впервые заявило о нарушении Севером принятых соглашений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ВОЗ: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одросткам не хватает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В РК отмечается серьёзная нехватка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среди подростков и молодёжи. 22 ноября в ВОЗ представлен доклад о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среди граждан 146 стран в возрасте от 11 до 17 лет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6 год. В документ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в РК нехватка физ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мечается у 94,2% всех школьников. Это самая высокая отметка среди стран,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Особенно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девочек – 97,2%. Только четыре государства в рейтинге имеют отметку выше 90%. Это РК, Филиппины, Камбоджа, Судан. Обычно такая проблема наблюдается в странах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а. Поэтому ситуация в РК, которая считается финансово обеспеченной, носит очень серьёзный характер. (RKI)

Слитно или раздельно?

К вопросу о двух- или односложном написании корейских имен

Вначале несколько замечаний по написанию и произноше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имен в любой стране. В любой стране по-своему, как более удобно и как сложились традиции, пишут названия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имена и фамил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В этом нет ничего высокомерного или неуважительного к другим народам. Так удобнее и так сложилось.

И почему-то никому не придет в голову обижаться, что на другом языке название тво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звучит не так, как у тебя в стране принято. Например, берем корей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Северная часть называет себя Чосон минчжу чжыу инмин конхвагук, сокращенно – Чосон. Южная часть – Дэханмингук или сокращенно – Хангук. Они же не обижаются, что в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например европейских, пишут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ил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ли вот название одного европ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в России ее называют как Германия, во Франции – Алеманге, в КНДР – доичланд, в Южной Корее – догил. Или вот, государство, которое у нас пишется как Япония. Ее самоназвание – Ниппон, в обеих Кореях – илбон (일본), а англичане или американцы – джапан (Japan). Так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лось.

Что касается имен, в большинстве стран имена пишутся слитно при двухсложном или трехсложном имени, например, Фидель, Фридрих, Джуди, Эма, Шарон, Роберт, Владимир, Михаил, Юрий, Александр, Лев, Федор, а в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ах преобладают имена из одного слога чаще всего у мужчин, например, Карл, Джон, Билл, Марк, Джилл.

У некоторых народов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ареала также преобладают имена из двух слогов, которые пишутся раздельно. Сейчас это Китай, Корея, Япония, Вьетнам, Мьянма. При этом Китай и Япония пошли по пути слитного написания при написании имен на 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ах. Поэтому Циньпин, Циньтао, Шаоци, Комаки.

При этом чаще в Китае, и реже в Корее встречаются и имена, состоящие из одного слога. Их транскрипции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конечно, не создают проблем. Имена по большей части даются в двух слогах, потому что в основе именн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Их можно понять только тогда, когда их напишут по-китайски, т.е. иероглифами или объяснят как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конкретный слог имени.

К тому ж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чень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слова, составленные из разных слогов первичных обозначений или слов и при слитном написании может потеряться значение имени. Например, мое имя пишется Ен Ун영웅 (永雄), если написать Енун, можно потерять изначальные значения слога. Так первый слог моего имени Ен - передается 19-ю разными иероглифами и каждое из них,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тличается по смыслу от других. Так же и второй слог моего имени передается двумя иероглифами. Поэтому только при двухсложном написании имен можно понять ре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имени, которое дали человеку при рождении.

Мы сейчас наблюдаем очень интересную ситуацию, когд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се имена, состоящие из двух слогов пишутся раздельно каждый слог, т.е. имя передается в двух слогах.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лный разбой. Официально считается, что по-английски нужно писать имена слитно.

Поэтому, например, в визитке Посла РК в России имя написано слитно, как в английском варианте, так и в русском варианте. Но им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и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ишется раздельно, к стати,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рламента РК Мун Хы Сан, и четырехкратный депутат парламента, единственный действующий депутат парламента, награжденный российским орденом Дружбы Со Ен Гил также в визитках свое имя пишут в два слога.

Это касается также и бывшего лидера ныне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Чу Ми Э, у которой на визитке имя по-русски тоже написано в два слога. Так же пишет свое имя в три слога министр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Ким Бу Гем. Так же пишет свое имя в два слога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сын президента Ро Дэ У (1988-1993) Ро Чжэ Хен, возглавляющий сейчас 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Интересно, что кроме посла мало кто из сотрудников посольства пишет на визитках свои имена в одно слово. Есть немало примеров, когда южнокорейцы пишут свои имена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через дефис.

Я за сохранение трехсложного написания фамилии и имен корейцев.



Ким Ен Ун,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рабо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кандидат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Дело не только в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емся в России порядке написания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и имен, но и в уважении традиций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где принят жесткий порядок написания фамилии и имен.

Есл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ожно пис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и отчество, или имя-отчество, а потом фамилию, 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правило написания сначала фамилии, а затем имени. Это связано с конфуцианской традицией семейных хроник и определения этнической и фами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человека. Для корейца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определенной фамилии, а стало быть и к месту происхождения его фамилии и его рода – существенно важный фактор его идентификации.

В свое время в России вводились разные формы написания китайских (имена писались через дефис), японских (имена писались слитно) и корейских имен (все слоги имени отдельно). Это было связано среди прочего и, возможно, более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различения написания кита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имен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чтобы сразу отличить корейца от китайца или японца, а также, помня о многовековой вассальной 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от Китая, и почти 40-летней жесточайшей колониальной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японцев, хотели избавить их от всяких аллюзий о бывших зависимых условиях от Китая и Японии.

Если после фамилии имя написано через дефис, понятно, что речь идет только о китайце. Сейчас по просьбе китайцев их имен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ишутся слитно. Потому, если писать корейские имена слитно, нельзя будет отличить их от китайских, и мы можем создат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хотим им навязать такую же форму написания их имен, как их бывших сюзеренов, что, думаю, в особенности на Севере, вызовет довольно резкий отклик.

К тому же при слитном написании можно вообще потерять связи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персонажами, а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ыми формами написания имен, принятых как в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России, так и в корееведении XX века. Но в России принято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чти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имена.

Например, у нас сложилось написание имени одного из величайших драматургов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Шекспира – Вильям (William). А ведь по современному его имя нужно было бы написать Уильям, как, например, пишут сейчас имя третьего в очереди на королевский престол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принца Уильяма. Шекспир вошел в рус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историю как Вильям, потому мы и сохраняем его имя так, как это сложилось в России еще с XVIII в.

Так же нужно сохранить в истории имена Ким Ир Сена, Ким Дэ Джуна или знаменитого партизанского командира Хон Бом До, первого создателя Компартии Кореи и перво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Ли Дон Хве, выдающейся антияпонской подпольщицы Пак Дэ Ай, хотя у нее настоящие фамилия и имя были другими.

Кого-то, может быть, раздражает, что иногда малограмотные журналисты ил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мало знающие Корею, могут принять последний слог имени за фамилию и обозначить им человека, что вызовет абсолютный хаос, т.к. непонятно будет, о ком вообще идет речь. Если писать корейские имена слитно, то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многие привыкли к американскому стилю написания фамилии и имени человека, могут принять имя за фамилию и будут персонажа своей статьи или исследования обозначать по имени, а не по фамилии.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ейшую ГРЭС-2

В селе Ильин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егодня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запуск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технологичных объектов энергетик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ахалинская ГРЭС-2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электроэнергией треть всего острова. Среднегодовая выработка будет достигать 840 миллионов кВт·ч. Мощность новой теплов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составит 120 МВт, что почти в полтора раза больше мощности первой ГРЭС.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запуска на символическую кнопку наж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АО «РусГидро» Николай Шульгинов.

– Сахалинская ГРЭС-2 – это третий объект, построенны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развитию энергет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на заменяет стар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которая работает на Сахалине с 1965 года и уже выработала свой ресурс. С вводом ГРЭС-2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ает большие резервы мощ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Мы воспользуемся этим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нов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 отметил Юрий Трутне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ГРЭС-2 для энергосистемы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ая изолирована от Еди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 Современная станция обеспечит надежное и бесперебойное энергоснабжение острова, создаст условия для подключения новых потребителей – жилых кварталов,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это большое событие. Сегодня мы благодарим строителей за работу и желаем энергетикам безаварийной работы,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 Никакое развитие без энергии невозможно. Поэтому важно, чтобы островная энергосистема надежн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а в сложных природных 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обеспечивала жителей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Николай Шульгинов рассказал о техн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ах ГРЭС-2. В качестве топлива она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менный и бурый уголь местн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 Солнцевского и Горнозаводского. При этом расходы топлива будут в полтора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на старой станции.

– Это то, к чему мы стремимся – повыша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системы энергети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зошел рост электропотребления – больше 3 процентов с начала года. Экономика развивается, и энергетика должна получ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азвитие,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усГидро.

Новая электростанция полностью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а. Систем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страивает работу агрегатов –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запросов энергопотребителей. Пики приходятся на вечерние часы. В любой момент блоки ГРЭС-2 могут выйти на номинальную мощность.

Станция оснащена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аровые турбины, котлоагрегаты, генераторы –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екотор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закупили за рубежом. К примеру, электрофильтры

француз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торые улавливают более 99 процентов частиц золы, уходящих в дымовую турбину. Так называемую «сухую» градирню башенного типа, доставили из Венгрии. Это пока единственный объект подобной конструкции в России. В отличие от обычных градирен, где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воды при охлаждении турбин испаряется в атмосферу, в «сухой» – потери воды исключаются.

Пр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танции учл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острова. Все сооружения способны выстоять при 9-тибалльном землетрясении и сильных тайфунах.

Возводить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в Ильинском начали в 2015 году. В пиковые периоды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трудились до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Теперь ввод ГРЭС-2 позволит закрыть старую станцию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Она будет выведена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нынешнего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А сотрудников переведут на нов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Как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ГРЭС-2» Игорь Шакиров, энергообъект даст 433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а. Чтобы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в селе Ильинское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ырос поселок энергетиков.

Здесь возвели 24 дома – 333 квартиры. В апреле 2020 года откроется новый детский сад на 110 мест. Сегодня в селе нет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 работают только группы для малышей при школе. Кроме тог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Ильинском будет сдан центр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где разместятся дом культуры и библиотека, а также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 программе «Инициативное бюджетирование» возведут баню.

Отметим, чт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инвестиций в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особствует выравнивание тарифов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до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готовится решение о продлении действия механизма выравнивания до 2028 года. ПАО «РусГидро» является оператором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 2020 году гран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искателями могут быть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ли инициативные сахалинцы. Цель конкурса – поддержать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ез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оритет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конкурса являются: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и защита граждан; охрана здоровья, пропаганда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материнства, отцовства и детства;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ддержка проектов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свещения,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защита животных; укрепление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гласия;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Размер гранта зависит от объема планируем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роекту и не может превышать 7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300 тысяч рублей – для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При этом личный вклад заявителя в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размер привлеченных средств) должен составить не менее 5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й стоимости проекта.

Требования к претендентам и перечень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размеще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зделе «Общество и политика» по ссылке: <https://sakhalin.gov.ru/index.php?id=839>.

Конкурс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 2020 году гран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с 25 ноября по 25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оформлению заяво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департаменте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2, офис 327. Телефон: 8(4242) 67-02-97,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e.ulyanova@sakhalin.gov.ru, Ульянова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Кроме того, аналоги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готовы предоставить в ресурсном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ОКУ «Аппарат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9, корпус б, офис 401. Телефон: 8 (4242) 42-42-30,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i.korzhova@sakhalin.gov.ru, Коржова Ир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завоевала 7 медалей V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в Москве приняли более 1800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ляла внушительная по составу команда из 60 человек. В их числе 21 конкурсант –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специалисты. В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также вошл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психолог, медицинский работник и сурдопереводчик. За каждым конкурсантом был закреплен личный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14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спешно преодолели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В финале чемпионата они смогли завоевать 7 медалей (одну золотую, три серебряные и три бронзовые).

Первое место в компетенции «Брошюровка и переплетное дело» занял сахалинец Александр Овчинников. Серебряные медали островная команда завоевала в компетенциях: «Разработчик виртуальной и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 Вячеслав Гришин, «Гончарное дело» – Семён Филимонов,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 и анимация» – Елизавета Остремская.

Еще три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в копилку принесли Виктория Соколова –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вышивание», Мун Гви Нам – «Робототехника» и Андрей Кожемяко –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 Наша сборная на чемпионате «Абилимпикс» выступила очень достойно.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ахалинцы даже улучшили результат прошлого года – тогда в копилке нашей сборной было всего пять медалей.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мастерств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сахалинцев заметно выросли. Мы очень гордимся нашими конкурсантами за их стремление быть лучшими,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Елена Баби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итно или раздельно?

К вопросу о двух- или односложном написании корейских имен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Тем более, что есть корейские фамилии, которые в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ах, да и во многих азиатских, а также мусульманских странах, могут сойти за имя или титул. Например, мы знаем имя знаменитого Кима Филби или актрисы, красавицы Ким Бессинджер, или отличающейся особенностями своей пятой точки Ким Кардашьян. Есть также фамилия Дон, Хан, Ли, Кан и некоторые другие, известные как имена или титулы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Между тем, взрослого корейца, тем более политика или человека довольно известного, звать по имени, это значит оскорбить его. Потому что привилегия называть человека по имени у корейцев дана только родителям, их старшим братьям и старшим сестрам, бабушкам-дедушкам, старшим братьям и сестрам и взрослым в отношении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т.е. в детстве или одноклассникам в школе и очень редко друзьям с детства, при том сохранившим одинаковое соц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моей семье бабушки-дедушки, дяди-тети все прожигали в Корее, а наша семья на Сахалине, потому меня по имени звали только родители и старшая сестра.

Далее, хочу сообщить, что ни МИД КНДР, ни МИД РК не обращались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об односложном написании корейских имен на русском или ином языке. Я специально консультировался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у дипломатов КНДР и РК. У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и их друзей в Японии, Китае только трехслож-

ное написание фамилии и имени. У южнокорейцев, как я уже писал выше, кто во что горазд.

Кроме того, есть примеры, когда за разные нарушения правил пребывания или какие-т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или даже уголовные деяния южнокорейца могут депортировать с запретом э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ет пересекать границу России. Его выслали по документу, в котором его имя записано в двух слогах. Он потом появляется с документом, где имя у него написано в один слог, а такой личности в базе данных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России нет, и он спокойно может заехать в Россию и совершить какие-то противоправные действия.

Я не могу понять причин, почему сейчас в отношении написания корейских имен поднята такая волна. Почему не предлагают в таком случае написать имена вьетнамцев или жителей Мьянмы тоже в один слог? У нас что, других проблем в корееведении нет? Да вот, возьмите хотя бы правила транскрипции корейских имен в визах. Одного южнокорейца, у которого фамилия и имя Цой Чжэ Док (최 재덕), сотрудники консульского отдела нашего посольства, то ли не знающ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о ли доверившиеся английскому написанию Choi Jae Duk, в визе дали ему следующие имя и фамилию – Чой Жае Дук. Хотя бы отдаленно напоминающее его настоящее имя и фамилию есть в этом написании?

(сайт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25 ноября 2019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우리말로 깨닫다]

잠을 청(請)하다

잠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들기도 하고,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잠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가장 심한 고문 중에 잠을 안 채우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잠을 수 없을 겁니다. 잠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찾아오는 잠, 그리고 회의시간에 스며드는 잠은 참 괴롭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는 수수께끼도 있습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든 게 잠입니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 국어교육 전공)

우리의 의지나 주변의 상황이 잠을 이기게도 합니다. 급한 일이 있거나 해결해야 할 일,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잠을 이겨내고, 잠과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잠이 많던 사람이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사실 저는 밤을 잘 못 새웁니다. 혹시라도 밤을 새면 며칠 동안 크게 고생을 합니다. 자는 리듬이 깨지면 다른 곳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미리 서둘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것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지는 못 자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불면증은 다른 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서 스스로를 가라앉게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뛰기도 하죠. 한없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서점에 가면 불면증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불면증을 이기는 방법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효과가 적습니다.

불면증에는 밤에 아예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이에 따라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아지면 새벽에 일찍 깹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저녁에는 비교적 일찍 자는 편입니다. 새벽 기도나 새벽 공양에 할머니들이 많은 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가 새벽에 기도를 한다면 대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침형 인간까지는 괜찮은데 '새벽형' 인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새벽은 고민의 시간이고, 깨달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새벽 여명(黎明)의 빛을 맞으며 수행을 하는 이유일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말에서는 잠이 안 오면 부탁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청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잠에게도 부탁이 필요한 겁니다. '청(請)'은 우리말에서 독특하게 쓰입니다. 한자어임에도 자연스럽게 여러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청이 하나 있다, 청을 들어 달라, 청을 거절하다' 등에서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물론 '청하다'처럼 '하다'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청은 부탁하라는 의미입니다. '청탁(請託)'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도 나쁜 말이 아닌데, 뇌물이야기에 많이 나오다 보니 나쁜 말처럼 여겨집니다. 검은 것 옆에서 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청탁(原稿請託)에서는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부탁이라는 뜻입니다.

잠을 자야 생각이 정리되고, 심장이 제 속도로 가고,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자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잠을 청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잠에게 부탁을 할 때는 자신도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우선 약속을 줄이고, 술을 줄이고, 생활을 조금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연습도 잠을 청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잠을 부탁하는 나의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고마운 일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잠을 청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은 잠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 '편히 주무십시오.'라는 우리 인사말이 참 좋네요. 오늘 밤 잠을 청해 보세요. 그리고 편히 주무세요.

(출처: 제외동포신문)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017. 3. 31. ~ 2020. 2. 15.
Registration period for overseas voters | 2017. 3. 31. ~ 2020. 2. 15.

국외부재자 신고 | 2019. 11. 17. ~ 2020. 2. 15.
Overseas absentee application period | 2019. 11. 17. ~ 2020. 2. 15.

재외선거권자 Overseas voters

- 재외선거인 Overseas voters**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South Korean citizens 19 years of age or older who are not registered residents and would like to vote overseas
- 국외부재자 Overseas absentee**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South Korean citizens 19 years of age or older who are registered residents and would like to vote overseas

신고·신청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 전자우편 이용**
Through post / email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Permanent list of overseas voters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List Browsing and Appeals

- 기간: 2020. 3. 7. ~ 3. 11. (5일간)**
Period: 2020. 3. 7. - 3. 11. (5 days)
-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Method: Viewing and appeal application can be done 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District Office or City Hall websites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신고·신청기간 | 2020. 2. 15. 까지
Application or Registration Period | By 2020. 2. 15.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The voting period may vary by government office)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Оргкомитет подготовил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веселые забавы и командные конкурсы. Наградой, разумеется, станут пельмени — победителям выдадут по 3 килограмма полуфабриката.

День пельмен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14 декабря и станет первым праздником в череде предновогодн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традиции, в программ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массовое гуляние с дегустациями главного блюда — пельменей с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начинками. Организаторы уже приготовили конкурсы для горожан. Островитянам предстоит соревноваться в скоростном сборе механической мясорубки, поедании пельменей на скорость и других веселых дисциплинах.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ов получают по 3 килограмма пельменей.

Чтобы выступить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жител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у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в оргкомитет.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граничено: до пяти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на один конкурс. Сообщить о своем желании состязаться нужно до 11 дека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Напоминаем, что мэри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до 24 октября принимала заявки на фестиваль пельменей от местных заведений общепита. Мероприятие уже идет: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предлагают горожанам не только традиционное сибирское блюдо, но и его разновидности — хинкали, буузы, ravioli, баоцзы и гедза. Максимальная цена за одну порцию не превышает 350 рублей.

사할린 주, 가짜 휘발유 유통의 선두 지역에 들다

<속임 없는 연료>정보 기획의 일환으로 러시아 통계청의 전문가들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연료시장에서 가짜 경유와 휘발유가 유통된 통계를 반영하여 전 러시아 연소성 운환류의 품질 지도를 작성했다. 사할린주는 위조 연료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 목록에 들었다. 연료의 20% 이상이 정품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 해당 기관 홍보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기초 조사를 위해 대응품 유통과 불법 적발률 사실에 따라 공식적 수치를 끌어냈다. 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전역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통계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추코트카 자치구, 마가단과 키롭스카야주, 칼미키야주와 아스크라한주는 통계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이 되지 않았다. 전국 51개 행정지역의 가짜 휘발유 비율은 연료시장에서 5%이하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닌그라드를 포함한 러시아 서부지역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연료시장에서 가짜 운환류 유통이 5%~10%인 6개 지역은 카렐리아, 한티 만시츠키자치구, 부랴트 공화국, 이르쿠츠크, 자바이칼 변경, 사하 공화국이다. 러시아 5개 행정지역의 연료시장에서는 10%~20%의 불법 위조된 경유와 휘발유가 유통되었다. 그러나 18개 지역은 20%이상의 위조 연료 비율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이 목록에 극동지역 중 3개 지역 - 유대인 자치구, 하바롭스크 변경, 사할린주-이 포함되었다.

<속임 없는 연료>기획은 러시아 통계청 지역 운영에 있어 업무의 단순화를 위해 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 전문가들이 수집하고 작성한 정보 수치는 다른 감독 기관에 유용할 거라 전망된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регионов – лидеров по продаже поддельного бензина

В рамках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Топливо без обмана» эксперты Росстандарта составили карту качества ГСМ в России. В ней отражена статистика реализации поддельного бензина и ДТ на топливном рынке страны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еречень регионов, где фальсификат встречается чаще всего — свыше 20 процентов топлива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качеству.

Как уточн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едомства, за основу исследования взяли официальные данные по фактам оборота суррогата и доли выявленных нарушений. Специалисты собрали статистику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распределив их по пяти группам. В Чукотском АО, Магадане, Кировской области, Калмыкии и Астрах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ю для обработки не собирали.

В 51 субъекте страны доля поддельного бензина составляет менее 5 процентов оборота рынка. В этот список вошли Москв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а также большинство регионов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включая Калининградскую область.

В шести регионах доля фальсификата составляет от 5 до 10 процентов рынка. Это Карелия,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О, Бурятия,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и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Якутия). Еще пять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держат на топливном рынке от 10 до 20 процентов некачественного бензина и ДТ. А 18 регионов и вовсе отличились долей подделки – от 20 процентов и выше. В этом списке оказались три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ЕАО,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оект «Топливо без обмана» разрабатывают для упрощения работы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управлений Росстандарта. Кроме того, информация, которую собирают и обрабатывают эксперты ведомства, будет полезна и для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й надзор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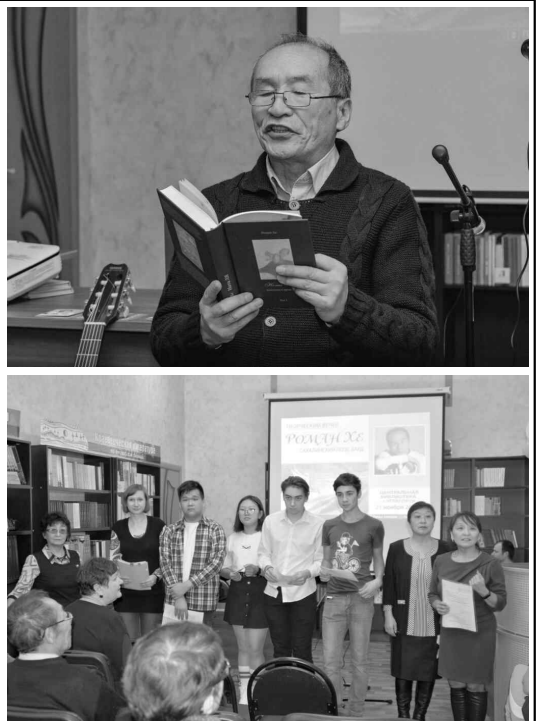
우글레고르스크 독자, 허로만 시인과 만나

지난 21일(목) 우글레고르스크시 도서관에서 올해 생신 70주년을 맞이한 허로만(허남영) 시인이 독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행사는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회장 강복숙)가 시 도서관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글 학교 수강생들의 시낭송 시작으로 허로만 시인의 무대로 이어졌다. 동포 시인은 한 곳에서 청소년부터 1세 어르신까지 모여 이들에게 어떤 시를 전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 그는 이날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시조도 낭송했다.

허 시인에 따르면 이날 만남의 분위기는 아주 따뜻했다고 전했다.

(본사 기자)



Заказывай еду онлайн

eda.sakh.com

ООО "Сах.ком", ОГРН 1046500642264,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